

### '광야의 소리'란?

본 광야의 소리는 알버커키 감리교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행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야의 소리는 뉴멕시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발행한다. 둘째 광야의 소리는 본 교회 소식지로 활용한다. 연합감리교회 소수민족지역교회 위원회(EMLC)에서는 이런 취지를 후원하고 있다.

본 광야의 소리 발간을 위해서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유익한 소식들을 수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습 기자들과 또한 뉴멕시코 전지역을 배포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찾고 있다.

뉴멕시코 각 도시에 본 광야의 소리를 배포하기 위해서 일단은 각 도시에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차후에 각 도시에 한인들이 연결되면 한인들을 통해서 본 뉴스레터를 배포하고자 한다.

배포 방법은 뉴멕시코에 있는 각 도시마다 도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품점이나 잡화점 등에 비치해 놓을 것이다. 그럼으로 본 광야의 소리가 지역 한인들의 눈에 띄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멕시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발굴되면 연락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도움을 줄 지역 한인이나 기자들은 본지 담당하고 있는 권구자 부장(전화 505-553-1009, 이메일 [kuchachoy@q.com](mailto:kuchachoy@q.com))에게 연락을 주기 바란다. 집에서 본 광야의 소리를 받아보길 원하는 분들은 본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를 위의 전화나 이메일 또는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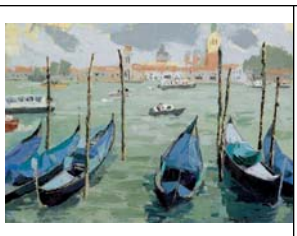
보낼 주소 Mailing Address  
To: Kucha Choy  
4008 Blue Ridge Pl., NE

### 내 용 Contents

- I. 뉴멕시코 한인소식 ..... page 2  
한인회/한국학교/한미클럽
- II. 알버커키생활안내 ..... page 3  
업소목/골프클럽학교제도/쇼핑안내
- III. 뉴스 뉴스 뉴스 ..... page 4  
해외동포 투표권 국회 본회 통과/ p. 4  
시민권자 한국 체류기간 연장/ p.4  
한국 외화 송금 다시 제한/ p.4  
미국에서 최고의 직업을 구하려면/ p.5  
취업비자와 교학력 취업이민 쿼타 대폭 증원/ p.5  
북한 붕괴되면 통일교 왕국된다/ p.6  
북한 미사일 발사 초읽기/ p.7  
독일 학교 총기 참사 16명 사망/ p.8
- IV. 알버커키감리교회 소식 ..... page 9  
알버커키의 바람(목양실에서)/ p.9  
교육관 증축 시작/ p.9  
365 성경 통독 안내문/ p.9  
주간 성서 대학 운영/ p.10
- V. 마음이 담긴 좋은 글 ..... page 10  
알버커키의 3월을 맞이해서(국정현) p.10  
새벽 기도(박지나) p.11  
속장님의 속도원을 향한 사랑(김준희) p.12  
이런 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국정현) p.13  
나의 25년(전용배) p.13  
사랑 사랑 사랑(권구자) p.14  
나의 찬양(철수와 영희) p.14  
하나님의 인도하심(최영심) p.15  
"마음 산책"을 읽고 나서(오 영) p.15  
알버커키감리교회 역사26년(김준호) p.16  
삶과 죽음의 선택(이석중) p.18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모습  
하나님 안에 사는 법(철수와 영희) p.19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철수) p.19  
크리스천 유머/ p.19

편집인: 권구자 부장 505-553-1009 [kuchachoy@q.com](mailto:kuchachoy@q.com)  
(광고 문의 및 원고 제출은 편집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Albuquerque, NM 87111



## 뉴멕시코 한인회

###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1987년에 설립된 이래 뉴멕시코 한인회는 계속 성장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는 한인 회관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한글 학교(매주 금요일, 토요일)와 한미클럽(경노회 매주 목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여러 이사님과 임원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인회 웹사이트 [www.kaanm.com](http://www.kaanm.com)

회장: 김두남 회장 전화 (505)270-1984

이메일 [kiminnewmex@msn.com](mailto:kiminnewmex@msn.com)

한인회관 주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전화 (505) 271-1777

## 제 13대 한인 회장 취임식

오는 4월 19일(주일) 저녁 6시에 한인회관에서 뉴멕시코 한인회장 이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회기동안 한인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12대 한인회장 문상귀 회장의 이임식과 새로 취임하는 13대 회장 김두남 회장을 환영하는 행사로 뉴멕시코 지역 모든 한인들을 초청한다. 취임식 후에는 한인회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뉴멕시코 한국학교 학생 모집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한국학교는 뉴멕시코 한인회 부설기관으로 만4세 아동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6반의 교실로 나누어 7분의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현재 반은 유아반, 유치반, 중급반, 고급반, 성인반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봄학기 개강 수업시간  
Spring Semester

금 Friday: 오후 6 - 8 pm,

토 Saturday: 오전 9:30 - 11:15 am

(미술반 Art classes 11:20 - 12:15)

수업료 Tuition:\$150+미술반 비용 Art classes

장소및 연락처 Location:뉴멕시코 한국학교 (한인회관)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교장 Principal: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cell (505) 991-2160, nm. [kls@hotmail.com](mailto:kls@hotmail.com)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1-오후 3시까지 Elena Gallegos Picnic Area(Kiwanis Reservation Area)에서 UNM 한인학생과 같이 Picnic이 있을 예정이다. 여러 가지 게임과 음식이 준비된다.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기대한다. (문의: 전옥미 교장 505-991-2160)**

## 뉴멕시코 한미클럽

(Korean American Club)

한미클럽은 뉴멕시코 한인회에 소속된 비 영리 자치단체로서 교민 55세 이상의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은 한미 클럽 회원 복지 향상에 두고 있다. 한미클럽은 지난임기를 마친 최진 회장단의 3가지 목표중에 하나였으며 그 세가지 목표에는 한인회관 건립, 한국학교 통합, 세 번 째가 경노회의 결성이었다. 2004년 5월 첫모임을 갖고 9월1일 발족위원들과 한미클럽 정관을 완료하면서 명칭을 한미CLUB으로 명하였다.

정식으로 2004년 10월 27일 첫모임을 갖은 이후 현재까지 회원은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15명에서 17명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모임보다 더 활기에 차 있으며, 협동심도 강하고,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간을 나누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들은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식사와 선물교환,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증정과 공동 식사등, 그리고 방문으로는 고전무용의 미경브라운과 노래의 최귀분씨의 방문이 있었으며, 건강강좌로는 한방과의 박달규씨의 방문이었다.

회장: 안교정 부회장: 정근태

\* 매월 목요일 일정표를 작성하여 영어회화, 시사토론, 손톱및 피부관리, 운동, 오락 등을 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점심을 제공합니다.

\* 정회원 자격은 한인회에 가입된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정회원의 자격이 있으며 회비는 매월 \$20로 정해져 있으며 강제성은 없다.

### 알버커키의 스시 레스토랑 제펜고

**JAPENGO SUSHI**

A TASTE OF TRADITIONAL JAPANESE  
WITH A CONTEMPORARY TWIST

LUNCH Mon - Fri 11:30-2:30pm • Sat & Sun 12:00 - 2:30pm  
DINNER Mon - Thurs 5:00-9:30pm • Fri & Sat 5:00-10:00pm • Sun 5:00-9:00pm

Phone: (505) 344-4469  
Fax: (505) 344-2654

Century Rio 24 Complex  
4959 Pan American Freeway, Suite C

\* 장소는 한인회관 매주 목요일 오전 10:30분에서 오후 2시 까지 합니다.

\*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봉사 신청서를 내면됩니다.

## 뉴멕시코 한인 업소록

뉴멕시코 한인회에서는 경제인 협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뉴멕시코 안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명함이나 비즈니스 상호를 한인회에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문의 505-991-8888, 505-270-1984)

## 뉴멕시코 한인 골프 클럽

뉴멕시코 한인 골프회가 구성되어서 김철 회장 (505-999-8222)이 골프회의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오는 3월 25일 수요일 정오 12시에 골프 토너먼트가 Sandia 골프장에서 있다. (문의: 505-514-4866)

## 알버커키 학교 제도

Albuquerque 학제는 유치원(kindergarten) 부터 5학년까지는 elementary school,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middle school,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high school로 되어있습니다. Albuquerque Public School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ps.edu](http://www.aps.edu)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는 어느 학교 일까?

881-8421에 전화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website [www.kumcabq.com](http://www.kumcabq.com) 에도 school district 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질문: 학교에 등록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 Birth Certificate or other proof of date of birth (여권)
- current immunization record (최근 예방 접종 증명)
- Proof of residency: Utility bills, apartment 계약서

질문: 유치원에 들어가는 나이는 몇 살?

kindergarten 에 들어가려면 그 해 9월1일 0:00 시를 기준으로 아동의 나이가 만 5살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학교를 옮기려면?

주거하는 지역이 아닌 학교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 2월 1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신청서를 내시면 옮겨 갈 학교에서 자리가 있어서 승락할 경우 옮길 수 있습니다.

## Albuquerque 지역 shopping 안내

### 한국 식품점 Korean Grocery

**아리랑** 1826 Eubank NE (255-9634)

**A-1** 1410 Wyoming NE (275-9021)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296-8568)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Yen Ching (중식, 한식)**

4410 Wyoming NE (275-8265)

**Korean BBQ (한식, 스시바)**

3200 Central Ave SE (338-2424)

**Ichiban (한식, 일식)**

10701 Coors Rd NW (899-0095)

**I Love Sushi (일식)**

6001 San Mateo Blvd NE (883-3618)

**Pacific Rim Asian Bristo (일식)**

10721 Montgomery NE (271-0920)

**Samurai (일식)**

9500 Montgomery NE (275-6601)

**Shogun (일식)**

3310 Central Ave SE (285-9166)

### 동양식품점 Asian Market

**Ta Lin** 88 Louisiana SE (268-0206)

**99 (BANH Oriental Super)** 5515 Gibson SE

### 쇼핑몰 Shopping Mall

**Coronado Center** Menaul+Louisiana

(881-4600): Foley's, Macy's, Sears, JC Penny, Mervyns 등 department stores와 Banana Republic, Gap, Ann Taylor 등 150개가 넘는 상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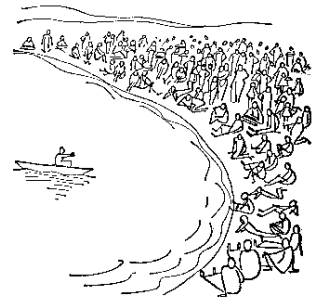
**Winrock Center** Indian School+Louisiana

(888-3038): Dillard's department store와 Gap, Talbot 등의 상점이 있습니다.

**Cottonwood Mall**

10000 Coors Blvd. Bypass NW

(899-7467): Dillard's, Foley's, Sears, JC Penny, Mervyns 등의 department stores와 135개가 넘는 상점, 그리고 United Artists Theatre가 있습니다.



## 미장원 Hair Cut

##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296-2335)

## 홍정희(Matthew Lee's Hair Style)

11901 Menaul NE (271-1056)

## Nob Hill Barber Shop

3408 Central Ave., SE (256-0707)

## Salon 123

7114 Menaul (872-0301)

## Tina(The Plance Hair Salon)

4300 Ridgecrest Dr., NW (907-9229)

## 세탁소 Dry Cleaner

##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881-4466)

##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255-0642)



## 해외동포 투표권 국회본회의 통과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는 '재외국민 투표권법안'이 5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영주권자 등 19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들은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지난 2일 통과가 예상됐으나 '선상투표' 허용 논란으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는 등 난항 끝에 결국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정개특위 원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주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우편투표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인터넷 투표 방

식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정원과 단기 해외체류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후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는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유권자에게는 지자체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권도 부여된다.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위성 송출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한정됐다.

헌법 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인 2008년 12월 31일을 1개월이나 넘기고서야 법안을 지각 통과시킨 여야는 앞으로 정치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한다. 새로 구성되는 정개특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선상투표와 우편투표 도입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은 법 제정 직후부터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시민권자 한국 체류기간 연장  
'2 년에서 3 년' 확정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한국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F-4 비자)'을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체류(비자 갱신) 기간이 1년 더 연장돼 한국내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

또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시·군·구청 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중 미 영주권자가 다수인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이다.

## 한국 외화송금 다시 제한

한국 정부가 외화송금을 다시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한국인이 미국 등 해외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2년간 외국환거래법상 한국내 거주자로 분류하는 등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유학이나 연수 등을 빙자한 달러의 해외 유출을 근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규

정을 정비, 유학 • 연수 • 취업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2년 동안은 한국내 거주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여부, 매각 대금의 국내 송금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현재는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순간부터 비거주자로 분류, 해외부동산 취득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않아 불법 외환유출에 악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내년 2월 이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외환거래가 정지되고 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된다.

총영사관의 경제담당자는 "유학생들의 경우 일부가 유학경비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달러의 불법유출을 통제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한국정부가 달러 부족으로 고간의 외환자유화 정책에서 송금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술해 불법상속, 증여가 성행하는 문제도 이번 개정으로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 제정부의 한 관계자는 "1만 달러 이상 외환 유출시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모든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면서 "이를 악용해 부모가 유학 • 연수생 자녀의 생활비 같은 용도로 돈을 송금한 뒤 부동산을 몰래 취득해 물려주는 불법 상속 •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미국에서 최고의 직업을 구하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

미국에서 최고의 직업은 수학자, 최악의 직업은 벌목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노동통계국과 인구조사국, 무역협회 등의 자료와 직업연감의 저자인 레스 크란츠의 자료 등에 근거해 미국의 200개 직업을 작업환경, 수입, 고용전망, 신체조건, 스트레스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했다.

최고 직업 1위를 차지한 수학자는 오염된 연기나 소음이 없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되는 등 작업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직군별 수입 중간값과 인상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수학자들의 연간 수입은 9만4천160달러였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3차원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멘탈이미지에 근무하는 수학자 제니퍼 커터(38)는 자신의 연봉이 이 금액보다는 많으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시간 외 근무나 스트레스에 지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자랑했다.



수학자에 이어 최고 직업 2위는 보험계리사(Actuary)였고 이어 통계학자, 생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역사학자, 사회학자, 산업디자이너, 회계사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학자들의 수입은 6만3천195달러로 조사됐지만, 미 농무부 경제조사국에 근무하는 사회학자 마크 노드는 자신의 수입이 이 금액의 약 2배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직업의 가장 좋은 부분은 내가 훌륭한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악의 직업 1위를 차지한 벌목공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고용불안, 3만2천124달러에 불과한 수입 등으로 인해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인디애나주 애코런 소재 벌목업체인 파이코목재의 폴 브랜치 팀장은 벌목현장에서 때때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 사망사고도 생긴다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벌목공에 이어 최악의 직업 2위는 낙농업자가 차지했고 이어 택시기사, 선원, 응급 의료구조대원, 지붕 수리업자, 쓰레기 수거원, 용접공, 유전 근로자(Roustabout.Oil worker), 제철소 근로자 등이었다.

## 취업비자(H-1B)와 고학력 취업이민 쿼타 대폭 증원

미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에 외국인 취업 확대론자인 재닛 나폴리타노 애리조나 주지사가 지명됨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고학력 취업이민 쿼타가 대폭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나폴리타노 지명자는 H-1B 쿼타를 2배 이상 증원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이민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쿼타 증원을 지지해온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2009년에는 쿼타 증원을 위한 최상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IT업계는 나폴리타노 장관 지명자가 지난 2007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11명의 주지사와 함께 의회에 H-1B 쿼타 증원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나폴리타노 지명자는 청원서에서 미 기업들의 전문직 노동력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H-1B 비자 쿼타를 2배 이상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 유학생 고급인력들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취업이민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외국인 취업 확대론자로 꼽혀왔다.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과 함께 조셉 리버만 의원이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유지하게 된 것도 쿼타 증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리버만 의원은 지난 4월 상정된 H-1B 쿼타 증원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해 나폴리타노 장관 지명자와 리버만 의원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중에 쿼타 증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IT 업계의 예상이다.

여기에 더해 오바마 당선자도 상원의원 시절 H-1B 쿼타 증원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2009년은 쿼타 증원을 위한 최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민업계에서는 내년 1, 2월로 예상되는 나폴리타노 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계기로 H-1B 쿼타 증원과 취업이민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북한 붕괴되면 통일교 왕국된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종교는 통일교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너지는 장벽>(홍성사)의 저자 데이브(NKmission 총책임자)가 밝힌 통일교의 북한 교세확장에 대한 우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종교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에 평화자동차공장을 가진 통일교가 평양시내 가까이에 교회를 세우는 등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최근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의 구순 잔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축하선물로 산삼을 보낼 만큼 통일교는 북한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데이브는 책에서 "통일교는 이미 북한에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과 정교한 계획을 구상하며 세력을 늘리고 있었다"며 "그들의 자금과 재원은 이미 북한에 잠입했고 증가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교세확장을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문선명 씨가 북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의 고향이 북한이고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곳을 성지화 순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세확장을 위한 자원과 정교한 전략을 위해 북한에 공장을 설립했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지> 2002년 3월 26일자 '문선명, 차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계약을 추진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통일교의 북한 교세확장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통일교와 북한 사이의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관계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 창건자요 주체사상 창시자인 김일성을 문선명이 만났을 때다. 김일성은 문선명이 극단적 보수주의자임에도 북한의 수도 평양에 있는 두 호텔 - 그중 하나는 161개의 객실이 있는 보통강호텔이다. 유일하게 위성 텔레비전을 갖춘 호텔로, 이 고립된 국가가 자란다는 것이다 - 을 매입하기 위한 대화를 지지하였고, 문선명이 북한에서 힘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북한은 문선명이 태어난 정주를 성지순로 개발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것은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 대성공인데, 공산국가는 모든 종교적 관습을 금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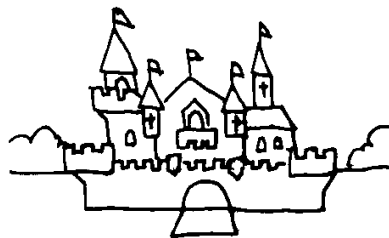
통일교는 2002년 봄에 평화자동차 조립공장을 북한 남포에 5천500만 달러를 투입해 건설했다. 이 공장은 계속해서 3억 달러를 투자해 확장하기로 되어 있다. 철의장막이라고 생각되는 북한 땅에 통일교가 먼저 자동차공장을 연 것이다. 북한을 방문하면 비정부 기관의 광고판은 평화자동차가 유일하다.

통일교의 북한 진출은 이것만이 아니다. 데이브에 의하면 백화점과 주유소, 자동차 전시장 등의 홍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세계평화센터'를 평양에 세워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문교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는 2005년 평양 시내 중심부와 가까운 곳에 통일교회 설립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완공했다. 5층 건물로, 매 층이 1천 평 남짓이나 된다. 데이브 씨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접하는 기독교에 대한 첫 인상이 통일교회에 의해 왜곡될 것 같아 염려된다"며 "북한의 장벽이 무너질 때, 북한 주민이 통일교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며 통일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거짓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양에는 통일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봉수교회나 칠골교회가 있다. 그러나 통일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두 교회 모두 북한이 점치적인 차원에서 북한 당국의 허락아래 세워졌지만 상황은 매우 다르다. 한국 교회의 북한에 대한 접근도 통일교보다 상황적으로 불리하다.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단결되지 못하다. 교단과 교리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창구도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통일교의 경우 명령과 실행의 단계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결속력과 결행의 힘이 크다. 재원도 한국교회보다 더 많고 치밀하다.

조직화된 통일교의 북한 교세확장은 한국 교회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것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해준다.



<무너지는 장벽>에서 말하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을 때의 시나리오와 종교단체의 진입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감지할 수 있다.

"북한은 오늘 밤 붕괴한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은 실패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국제적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북한의 문은 열렸으나 북한의 가혹한 상황, 이를테면 물 부족과 전기 부족, 연료 부족 등은 방문할 생각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교회들은 당혹스러워하며 단체를 조직하고 무슨 도움을 주어야 할지 의논하는 일에 수개월을 보낸다.

문선명은 몇몇 투자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수십억 달러를 모으고, 10만 명이나 되는 헌신된 추종자들을 불러내 수개월 동안 북한에서 거룩한 성지순례에 참여하도록 한다. 문선명과 그의 헌신된 추종자 10만 명은 북한이 열린 후에 첫 달 안에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하다. 문서를 배포하고, 각 마을마다 통일교회를 세운다. 수개월 내에 모든 북한 주민은 통일교 경전을 수령하고, 통일교회 회원들에게서 소책자를 받는다. 엄청난 수의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

문선명은 4억 달러를 들여 평양에 대성전을 짓는다. 어마어마한 성전이 6개월 만에 완공된다. 북한이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접하는 첫 경험이 통일교에서 비롯된다. 복음적인 선교사들은 북한이 열리고 수개월 안에 드문드문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나마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통일교와 경쟁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도 없다.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려서야 교회는 조직화되고, 북한에 이르기 위한 전략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너무 늦다.”

데이브의 이 섬뜩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교를 해 왔지만 통일성이나 연합성에서는 매우 부족하다. 파편적인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교육의 장애물은 다른 나라의 선교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일부 특수한 교회나 사명자들에게 해당되는 선교분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의 북한의 교세 확장의 치밀성보다 떨어진다. 북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통일교와 다른 이단들은 한국 교회의 몸집보다 작고 또 집약적이다. 재정 의 동원도 한국 교회보다 쉽다. 교회보다 먼저 뛰어올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낫다. 북한선교를 하는 단체들의 수고와 열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약하다.

〈무너진 장벽〉에서 데이브가 지적하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 속에 들어 있는 통일교의 북한 약진에 대한 경고를 한국 교회는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통일교를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초임기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다음달 4~8일 사이에 발사할 것임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북한은 또 동해와 태평양 상의 좌표 하나씩 두 개의 로켓 궤도 좌표도 통보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국토해양부에서 과검된 담당자를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담당 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북한이 11일(현지시간) 저녁 늦게 북한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의 문건을 이메일로 보내왔으며, 시험통신위성을 다음달 4~8일 동해와 태평양 상 각 한 좌표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확인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MO 등 국제기구들에 "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국제기구들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거들된 경고와 인류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국제 조약에 가입하고 통보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며, 발사하려는 로켓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임을 강조, 국제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초임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 방침을 굳히고 발사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동시에 명분찾기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순방에 나섰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초청하지 않은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로켓 발사가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북한이 굳이 보즈워스 대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발사 판단이 서 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정 시기는 지난 8일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

다음달 초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는 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김정일 3기체제'를 공식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사일 발사를 대내 결집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은 국제기구에 발사 시점을 통보하는 등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임을 강조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발사에 성공한다면 장거리미사일 능력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북미 양자대화로 이끄는 압박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남측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에서 협상의 우위에 서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 시기가 통보됨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북한이 제공한 좌표들을 통해 발사체의 정확한 궤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발사시기 무렵 궤도 주변 육·해·공상의 안전 조치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구분이 어려운 같은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사계획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북한의 발사 강행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등 대책 협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외교력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의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발사체가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시험발사 자체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발사 계획 종단을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해도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공유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발표 내용에 없어 미·중 간에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발사 이후에는 관련국들간 이같은 시각차를 조율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로켓 조립을 사실상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으나 아직 발사장에 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내달 4~8일 사이에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전제로 "이달 하순께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는 등 발사 준비가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군은 북한이 발사할 로켓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이 지스함 9천금의 스테덤호와 채피호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북한의 발사체 궤도인 동해상에 배치해 놓고 있다.

## 독일 학교총기참사...16명 사망

11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남서부의 한 실험계 중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범인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사망했다. '팀 크레히머'로 알려진 17세의 범인은 학교 수업이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33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빈덴엔에 위치한 '알베르틸 레알슈테'에서 9mm 베레타 권총을 난사한 뒤 도주했으며 추격에 나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자살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헤리베르트 레흐 내무장관은 이번 사고로 14-16세인 학생 9명, 교사 3명, 일반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뉴스 전문 N-TV는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 지난해 이 학교를 졸업한 범인이 전투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내에 진입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다고 보도했다.

범인은 한 교실에 난입한 뒤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학생 8명과 교사 3명이 사망했고 부상한 학생 1명은 나중에 병원에서 목숨을 잃었다. 범인이 학교를 떠나 도주할 때 학교 앞 정신병원 정문에서 있던 이 병원 직원 1명에게도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학생들은 총격사건이 발생하자 공포에 휩싸여 건물 창문으로 뛰어내리기도 했으며 사건 후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학교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출입을 봉쇄한 이 학교에는 약 1천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경찰특공대가 최소한 10대의 헬기와 탐색견을 동원해 범인 추격에 나서자 범인은 인근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폴크스바겐 샤란 승용차를 탈취한 뒤 뒷좌석에 앉아 운전자에게 고속도로가 있는 남쪽으로 차를 몰도록 지시했다. 운전자가 경찰의 검문을 보고 도로에서 이탈하자 범인은 차에서 뛰어내려 학교에서 약 30km 떨어진 벤틀링겐 시의 공단 지역으로 도망쳤다. 그는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가 영업사원 1명과 고객 1명을 살해한 뒤 다시 밖으로 나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결국 자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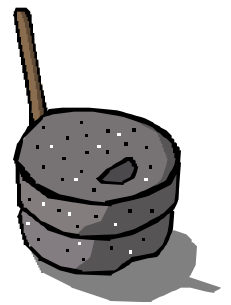
경찰은 학교에서 12km 떨어진 로이텐바흐에 있는 범인의 집에서 사격클럽 회원인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16정의 총기를 확인한 결과 권총 한 점과 상당량의 총알이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크레히머가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으며 성적도 중간 정도였다고 밝혔다.

레흐 장관은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경고나 징후도 없었다"면서 "단지 희생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희생된 학생 9명중 8명, 교사 3명은 모두 여성이었다면서 대부분 머리에 총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네에서 범인과 함께 탁구를 하곤 했다는 '미하엘'(19)이라는 청년은 로이터 통신에 범인이 공포영화 수집광이었으며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2002년 이후 최악의 학교 총기사고가 발생한 빈덴엔은 슈투트가르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소도시로 인구는 약 2만7천명이다. 2002년 4월 뤼팅겐주 에르푸르트에 한 고등학교에서는 19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 교사 1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6년에는 독일 서부 엠스데텐에서 소총과 폭탄으로 무장한 범인이 유혈난동을 부리면서 11명을 다치게 한 뒤 자살했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사건이 끔찍한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면서 "오늘은 독일 전체에 애도의 날"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짧은 순간에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희생자 가족과 친지들에 애도를 표시하는 한편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는 이날 1분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으며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 알버커키의 바람



알버커키의 봄에는 바람이 많다. 오후에 바람이 불면 아무리 입을 꼭 다물고 걷는다고 할지라도 흙모래가 입안에 들어온다. 뒤편 아랫니를 물고 이빨을 굴려보면 여지없이 흙모래가 씹힌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또한 한 밤중에 부는 바람 역시 대단하다. 고요하게 잠든 사람을 깨워놓을 정도로 소란할 뿐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밖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신발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커다란 쓰레기통조차 넘어져 있기도 한다. 그야말로 야수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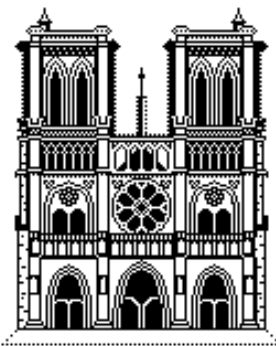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불어대는데도 여지없이 꽃은 피어나고 나무에는 싹이 돋아난다.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력이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바람이 항상 부는 것은 아니다. 바람이 없을 때에는 최고의 환경이 되는 것이다. 적당한 기온과 맑은 하늘, 저녁이 되면 펼쳐지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

지금 미국에는 경제적인 찬바람이 불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람을 맞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꽃을 피워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공급해주는 신앙의 꽃을 피우고 희망의 싹을 트여야 한다. 그러면 바람이 멈춘 어느 날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런 새로운 세상 말이다

(목양실에서 김기천 목사)

## 교육관 증축 시작

건축위원장 김준호 장로



지난 3월 13일 건축위원회는 PJ 건축회사와 공사계약을 함으로 공식적으로 건축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먼저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약 3-4주간 걸릴 예정이다. PJ 건축회사는 허가가 떨어지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을 완공할 것을 약속했다. 물론 건물 사용 허락까지 받아주기로 하고 계약한 것이다. 이번 결정까지 건축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다. 네 개의 건축회사들로부터 공개 입찰을 받았지만 모두 우리가 예상한 30만불을 초과한 금액들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건축법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증축을 하는 경우이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본당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것만 설치하는데도 비용인 4만불 이상이 된다. 거기에서 부엌에 후드를 설치하는 것도 첨가되었고 주차장도 확장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그러니 당초 예상한 30만불로는 어렵게 된 것이다.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건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다른 시공업체들에게 주면 계산상으로는 예산 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PJ가 맡아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본 장치들과 외부공사를 완공을 하는데 23만불이면 된다. 나머지 내부 공사를 5만5천불에 주차장을 1만5천불에 다른 시공업체들이 맡아서 하면 계산상으로는 30만불 안에 마칠 수 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 365일 성경통독 안내문

교육부장 최성원 집사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와 언약케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칠년 곧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자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 명기 31:9-13).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는 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기저기를 보거나 끝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시며, 크고 높으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엔 글자를, 다음은 단어를, 그 다음 문자, 그 다음은 문단, 책, 권, 전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보다 '성경에 관하여' 쓰여진 책을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통독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편식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편식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작로나 무로 치우치게 됩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개개인의 영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365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365일 성경통독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속회별로 부속장을 중심으로 희망자를 접수한다.
2. 연간 성경통독 순서표를 나누어 드리고 매주일 다음 주 성경통독 공부 안내문을 나눠드린다. 성경통독 순서표에는 매일 통독한 부분을 표시한다.
3. 희망자끼리는 MP3에 전문 낭독사의 성경 낭독 자료를 복사하여 드린다. 연락처: 교육부 최성원 집사, 남선교회 김기동 회장.
4. 교육부에서는 매 3개월 마다 참여자의 성경통독 순서표를 점검하며, 6개월, 12개월 차에 문제지를 드리며 년 말에 성적이 우수한 분께는 시상을 합니다.

## 주간 성서 대학 운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교회에서 성서 대학을 운영한다. 월요일에는 현대신학 강좌가 있고 목요일에는 성막론 강좌가 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물론 강의는 모두 김기천 목사가 한다. (성서대학에 관한 질문: 김준희 집사, 전화 505-331-2000)

월요일에 있는 현대 신학강좌는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가 계몽주의 사조를 거쳐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미 두 번의 강의를 거쳐 계몽주의의 특징과 이성주의 종교(Deism, 이신론, 자연의 종교)의 등장 배경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중세기와 종교개혁 당시까지만해도 사람들은 성서에 입각한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지구의 역사가 45억년이란 기간으로 확대되면서 천지창조와 세상의 종말이란 기독교 역사관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식되던 인간 기원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한 17세기 기독교 내에 교리로 인한 교파간의 분열과 싸움이 과열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비단 200-300년전의 일로 그친 것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목요일에 있는 성막론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번은 들어야 하는 강좌이다. 성막(tabernacle)이란 거룩한 천막(holy tent)을 말하며 "장막"이란 말로 쓰이기도 하다. 모세를 통해 계시한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다. 성막은 텐트로 지은 건물이지만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다. 재료만 다르지 설계도는 같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막이었다. 성막을 모르면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용어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성막론 강좌에는 비디오와 파워포인트를 통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알버커키의 3월을 맞이해서

울타리, 담장....

문득 느껴진 모습.....

밝은 햇살과 새소리에 늦은 아침 잠을 깨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어난 뱃살을 줄여 보려고, 주섬주섬 운동복을 갈아입고 달리기엔 나선다.

바스토우의 북쪽으로, 그런아버의 동쪽으로 구불구불  
길에 이르며, 문득 내 걸을 뒤따라 달리는  
담장을 의식하고는 마치 미로를 헤매는 생  
쥐 같은 느낌이 몰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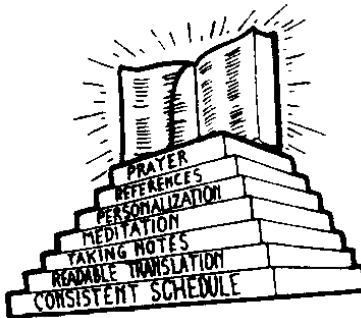
멋있는 집일수록 담장은 높아지고, 담장이  
낮다 해도 개의 울음이 더욱 사나워지며,  
마음 한 편으로 외로움과 공포가 찾아 든  
다.

내가 정처 없는 떠돌이라면 나의 울타리는  
어디인가? 모진 눈보라와 비바람이 심한  
날에 담으로 둘러싸인 저 아늑한 집이 나  
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까? 위험과 위기가 닥쳤을 때  
저 담 너머의 집이 나를 보호할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까? 우리 삶의 터전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울타리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울타리가 존재한다.

담장으로 인한 마음의 외로움에... 오늘은 왠지 부모님  
의 포근하고 따스한 사랑의 울타리가 그리워진다. 생활  
의 궁색함으로 투정과 불만이 많은 시절이었지만 힘들  
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던 세상에서 제일 포근하고, 편안한 나의 울, 어버  
이의 품. 어느새 두 자녀의 부모가 되었지만, 나의 부모  
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 지 근심이  
앞선다. 어느새 늙고, 병약하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 분들의 따듯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 죄송함에 두 눈에  
눈물이 흐른다.

오늘따라 나의 약함과 무능함이 나를 더욱 작게 만든다.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부하게, 눈먼 나로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행하셨음을 그리고 행하심을 고  
백하게 하소서. 연약한 내가 아닌, 교만한 내가 아닌,  
주의 강한 팔을 빌어 삶의 튼튼한 울타리를 짓게 하소  
서. 그 울타리가 포용의 한계를 갖게 하지 마시고, 들고  
뜯고, 쉬고 뜯고, 모든 이에게 평안의 울이 되게 하소  
서.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 2009년도 두 달이 지나가 버리고,  
3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새싹의 움  
튼과 함께 찾아오는 봄에 자리를 내어 줍니다. 새 희망  
과 소망을 꿈꾸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국정현 권사)



## 새벽 기도

오늘은.. 캄캄한 새벽, 고요한 적막 속에 시동을 켜며, 지금까지의 내 삶 중에 이렇게 열심히 (?)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던가.....?? 개근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 하는 것도 그렇다고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왜 누구를 혹은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지금의 내 열정 또한 내 젊은 날의 초상이지.. 언젠가, 먼 훗날, 새벽예배를 가지 못하는 날이 왔을 때 그때 그랬지... 하면서 지난날을 추억할 "꺼리" 를 만들어 놓는거야.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교회로 향했죠. 며칠 전 진이 머리를 자르러 선교회한테 갔었는데 다음날 새벽예배 참석할걸 보니 얼마나 기쁘던지.. 늘 보이던 차가 안보이면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픈가?' 궁금하고 못 보던 차가 있으면 '누구지?' 하며 반갑듯이 내가 안 보이면 다른 누군가도 (우리 멤버) 나 같은 마음이려니 합니다. 세수는 안 해도 머리는 감아야 나가는 사람인지라 새벽마다 수도꼭지에 머리를 박으며 잠을 깨는데 요즘은 울씨년, 차갑더라구요. 어제 오늘 세상스레,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면 참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구나 .. 모범생다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그당은 나만의 욕심 기도를 했고 또 그 당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죠. 얼마전부터는, 주위에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 하는 사랑의 목소리가 들릴 때는 '하느님,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쯤 읊조리죠. 오늘 아침도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 하셨을 때, 새삼 목사님을 다시 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죠. 전에는 목사님은 어련히 하느님과 잘 통할라구.... 하느님은 내 부탁도 안 들어 주는데, 남의 기도 까지 하면 그야말로 '너나 잘해라' '웬 오지람?' 하실걸. 그러저러 어느새 계절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줄린 눈을 부비며 교회로 향하는 마음이, 무언가 어딘가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새벽을 열고, 또, 새벽공기를 가르며 달려노라면, 어느새 맑아진 머리와 편안해지는 마음을 즐기죠. 자꾸만 자꾸만 미워지고 바래지는 마음을 좋은 말쑥과 만남으로 가능하면 때문지 않게 전날의 먼지를 털당니다. 기도 마치고 아니 가끔은 기도를 잠시 미루고 불켜진 십자가를 바라 보노라면,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 짐을 느껴요. 내가 미소 지으면 마치 십자가도 내게 미소 짓는 양 예뻐 보이고.. 내마음이 울적하면 '내가 있잖니.. 나를 믿으렴..' 마치 그 옛날 내 엄마 품처럼 따듯한 사랑과 희망을 얻는답니다.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새벽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 유지하고.. 언제까지나 하느님을 향한 내 마음 식지 않도록 오늘도 두 손모아 기도 합니다..... (박지나 교우)

케이블 TV나 위성 안테나 없이 실시간으로 한국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http://wwitv.com>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방송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그 중에 27개의 채널로 한국 방송이 실시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 새벽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하는 이유

1.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 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갔다와도 다들 자고 있어서 마땅히 얘기 할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면 밥통에 쌀도 씻어 두고 스위치도 톡 눌러 둔다. (요즘 세상에 출근할 때 부인이 일어나서 잘 다녀오라고 하기만해도 감격스러운 세태 속에서 아침 밥 먹고 출근 할 수 있는 남자는 정말 행복한남자다... )

2. 새벽기도와 여자는 '잔소리'를 안하기 때문이다.

새벽기도때 내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와서 보면 툭툭 자는 남편이 그렇게 예쁠 수 가 없다.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침대 옆에 굴러 뱅기는 양말 기쁜 마음으로 빨래통에 넣어둔다. 거실에 널려있는 장난감 책 등은 쓰다듬으면서 정리한다.

3.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 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고자세 고대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지고 가면 사랑도 순종도 어렵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 대드는 여자들은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시라.

5. 새벽 기도하는 여자의 자녀는 꿈을 심어가면서 자란다.

새벽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또 집에 돌아와서는 잠자는 자녀 옆에서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찌 그 자녀가 꿈대로 되지 않겠는가?

6.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무서운 기도빨' 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리듯이 여자가 담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리 저리가라다. 은혜가 비오듯 내린다. 기도 응답 '짱'이다. (참고로 '노우'도 응답이다)

7.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 이기 때문이다.

계요른 여자들은 아침에 눈 절대로 못 뜬다. 화장실 불일 빼고는...

8.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다.

아침에 교회까지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고프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침 엄청 먹는다. 점심은 파다한 아침으로 인해서 조금만 먹는다. 저녁은 아직도 배가 불러서 대충 먹는다. 아침을 짹 먹으면 건강하다는 건 건강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 새벽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하는 이유

1.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새벽기도의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지를 아는 남자' 이기 때문이다.
3.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 이기 때문이다.
4.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분명 말쑥은 아녀기 때문이다.
5.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 이기 때문이다.
6.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 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7.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 이기 때문이다.

## 속장님의 속도원을 향한 사랑

안녕하세요 ~ 소망식구들,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네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셨죠? 전 침대에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꼬맹이 때문에 겨우 일어났어요. 어제 주일 최국렬 집사님 부부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국냄비 까지 열심히 닦으시는 모습에 남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집사님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구요! 야생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ㅎㅎㅎㅎㅎ 이옥주 자매님은 말없이 나타나 도와주시고 우리식구 다 된 것같아 흐뭇했어요. 남자 집사님들은 밖에서 청소할 동안 이은희 집사님 뒷정리해주시고 이옥주 권사님 도와주지 못하셔서 미안하신지 마지막 주일 거대하게 커피 사주신다고 하시고~~~~~ (안그러셔도 되는데) 박영숙 집사님 출타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 보오니 안심이 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것을 집에 퍼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퍼갈 줄 몰라 우리 소망 식구들 집에 다 데리고 가 저녁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이런 날 때문인지 속장 오래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스치네요 (지금은 ㅋㅋㅋㅋ)

우리 소망 식구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메아리 쳐봅니다

소망식구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가운데 한 주를 은혜스럽게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살롱~~~ (김준희 속장)



## 이런 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제는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인지 정신이 몽롱해지면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세워 머리를 높이 받쳐 들고는 가로등이 밝게 비치는 창가를 바라보며, 이런 저런 생각과 함께 여러 얼굴들을 브라인더에 그려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 제목에는 “귀여운 속장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친구처럼 만연니처럼 삶의 조언자로 도우미로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로 소망 속을 등적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속장님, 그런 분이 있어서 소망 속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장님의 “너무 은혜스러워 나누고 싶어 보냅니다”라는 메일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이 번 일로 소망 속에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박지나님의 “귀여운 속장님”과 이옥주님의 “몇 시간 동안의 지옥과 천국...”을 읽으며, 또한 다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표현은 다르지만 나의 일처럼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격려를 해주며, 함께 기도해주는 속도원 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소망 속은 앞으로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소망 속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의 간식봉사는 기본이고, 아침 일찍 교회학교의 운영과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예배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주일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송장비와 프로젝터의 자료를 만드시는 분, 성가대에 참여하여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소망 속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알버키키를 이끄는 축복의 샘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속에는 이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일과 믿음의 열정에는 젊은이들이 경쟁할 수 없으신 분, 교회의 대소사와 관련한 일만해도 벅차실 텐데 이 일들은 기본이며, 매주 새로운 찬양 곡을 선정하시고 성가대를 이끄시느라 애쓰시는 분,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매주 목사님의 말씀선포와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목사님의 성경공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녹화하고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려 주시는 분, 부족함이 많은 저는 그 분의 삶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소망 속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차고도 넘치리라 믿습니다.

금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건강하시

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국정현 권사)

## 알버커키에서 산다는 것?

밖에는 지적지적 비가 내리네요. 아니 흐리멍텅 구질구질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하리만치 우울하게.. 어느해인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보았던, 무서우리만치 요란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너무나 간절하게 그리운 날입니다. 이런 날은 파전에 동동주가 생각나지 않는지요..^^\* 좋은 사람들과 둘러 앉아 주머니 받거나, 아련한 첫사랑 스토리라도 풀어 놓으면 .... 크~

문득, 이경화 장로님댁에서 보았던 산타페 역이던가요? 흑백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그 사진을 보았을때의 느낌은, 내가 보고 느낀 지금의 산타페와는 사뭇 달랐지요. 서부영화에서나 볼직한, 마치 흘러간 시간 속 같은... 그 앞에 남모르게 한참을 서 있으며, 그 사진 속에서 지난날의 나의 부모님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로 달려 갔지요.....(장로님 죄송)

언제나 NEW NEW 새로운 것이 좋고, 복잡한 시스템이 한 수준 하는 거 같고, 남보다 특이해야 세련된 거 같고..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지, 복잡한 시스템 딱 질색이고, 간편하고 단순한 게 최고지요. 새것보단 오래 오래 내 가족의 손 때 묻은 장식이 좋고.... 오늘 따라 옛사람들이 그렇고, 엄마의 낡은 살림살이들이 그렇네요.

이렇듯.. 나역시 알버커키 생활 3년 반, 이 시간동안 알게 된 사람들..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 생각해서 굳이 알만한 사람도, 알고 싶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 했는데

새삼 지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위에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늘.. "난 혼자야, 누구하나 의지할 사람없어, 내 마음이 힘들때 누구 하나 내 손 잡아줄 사람없어." "누구한테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봤어? 자기가 먼저 손 내밀어 봤어?"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은 아닐 수 있잖아." "그래, 아닌것도 50, 얻는것도 50 이야, 반반이야, 똑같은 반반인데 상대방이 받아들여지면 100 이야. 어떤 걸 선택할래?" ".....100..." (이상 김준희 속장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국권사님 말씀처럼, 맞언니처럼, 친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속장님이 있어 마음 훈훈하고, 말없이 뒤에서 우리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의 든든한 뺨이 되어주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살아도 살아도 채워지지않는 우리의 외로운 이



민 생활에, 소중한 우리의 관계들이 사랑으로 오래오래 지속되길 오늘도 기도 합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메일을 기다리는 재미도 하루를 살며 작은 기쁨이 되네요....^^\* (박지나 교우)

## 나의 25년

서울에서 36년을 살았다. 그리고 San Jose, California를 거쳐 여기 ABQ까지 또 다른 25년을 넘기며 살고 있다. 82년 사랑스런 아내와 딸 아들 넷이서 미국에 왔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새로운 생활을 찾아온 이민여행을 완행열차를 타고 시작했다. 지금은 중도에서 4사람(사위, 며느리, 손녀, 손자)을 더 태워 8명이 되었다. 중도에 있는 많은 간이역에서도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앞만 보고 달려만 가는 이민 생활 속에도 우리 일행은 티끌만한 어떤 믿음이라도 있었는지 별 불평 없이 잘 따라주어 오늘에 이르도록 해 주었음에 고맙기만 하다.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지 못하고 시원치 않은 길잡이만 믿고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안도의 한숨도 쉬어본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 왔을까? 돈, 명예, 성취감 또 다른 어떤 것... 그래서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를 욕심 속에 날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 날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 왔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 만큼이라도 평탄히 생활에 불편 없이 지내온 이민생활이나 자녀들도 탈 없이 부모의 소박한 꿈 기대이상으로 모국어 잘 구사하며 모국의 문화를 잘 이해해 가면서도 이곳에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여 자기 몫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으니 이 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죄는 죽음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살지 않으면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큰돈을 벌기 위하여 평탄치 않은 삶을 살기보다는 자유스러운 미국생활 양식을 따라 즐기며 이웃과 고객들과 다정히 지내는 참다운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며 평범하게 착실한 삶을 살아 올 동안 주위의 많은 이웃들은 저만치 멀리 앞서 달려가 나의 곁에서 멀어졌다. 그럼 나는 바보스럽게 25년을 지내온 것일까? 아니 나는 나일 뿐이겠지. 나는 내 걸음대로 걸어가야지하며 호흡을 골라본다.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진정한 그분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초고속 열차로 갈아타는 무모함 없이 계속 완행열차에 의지하며 내 손에 들어와 있는 행복에 만족하며 즐기며 평온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주님 오늘하루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혹시 어느 누구에게라도 언짢은 말을 듣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힘든 생활 속이라도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삶의 행복을 느끼며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

량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싶다. 오늘은 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나의 미국생활 25년도 생각해 보면서 이 간이역에서 너무 오래 쉬었나보다. 30주년에는 보다 더 오래 쉬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떠난다.  
(본 글은 전용배 집사님께서 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쓰신 것입니다)

## 사랑 사랑 사랑

우리는 흔히 먼 길을 찾아온 손님에게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나눈다. 우리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도 먼 길을 걸어 이제 26주년을 맞는다. 창립 목사님 김고광 목사님을 비롯해서 1대 정용치 목사님, 김학수 목사님, 송종남 목사님, 그리고 이제 4대 김기천 목사님을 모시고 더더욱 부흥해가고 있는 이 멋진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교회의 온 교인들은 주님이 내려 주시는 무한한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항상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 추수감사절 오랜만에 교회 문을 다시 들어섰을 때 코끝을 찡하게 스며들던 맛있는 음식 냄새와 김치 냄새를 맡고서야 “아.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평안함 속에는 “이제 다 왔다.”는 안도감마저도 들었다. 정겹고 낯익은 얼굴들을 대하니 마치 오랫동안 떠나있던 부모형제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부쩍 늘어난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와 외국인들이 금방 눈에 띄었다. 한인 교회니까 외국인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도 처음엔 이 나라에 외국인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니 우리 모두 똑같이 외국인들인 셈이다. 미국나라 자체가 그렇게 “melting pot” 이라고나 할까. 어쩌면 주님은 미리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한 식구가 되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음은 주님이 내려 주신 크나 큰 은총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주일날이면 미국인들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친근한 인사말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정을 나눌 때 우리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웃음 띤 얼굴 안에 한 아름 주님의 축복이 담긴 듯하다.

진정한 가르침 속에서 중심이 확고하고, 은혜와 열정이 넘쳐흐르는 김 기천 목사님의 설교의 큰 울림을 과연 어디 또 다른 곳에서 받을 수가 있을까. 주일마다 설교시간이 아쉽기만 하다. 굳건히 뿌리내리시고 계시는 믿음직스러운 장로님들, 아름다운 성가대, 여성교회, 남성교회, 부역에서 봉사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정성담긴 손길들, 반짝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온 교인 가정 가정들이 알버커키 곳곳에서 밤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고 있다.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개인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십사”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주일날이면 우리 교인들은 주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 “아멘” ~ “아~아멘” 이 될 새 없이 입에서 나온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형제, 그리고 또 내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전도해야함이 우리 각 개인들의 사명이 아닐까싶다.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봉사원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작은 고장 알버커키에서 살아생전 우리는 과연 몇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 올 수가 있을까? 날카로운 이 없는 사랑하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옛 습성을 버린 우리 크리스찬의 좋은 삶이 본보기가 되어서 전도를 낳게 될 것만 같아서이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다. 요즘은 흔히들 “I love you.”란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나눈다. 그러나 참사랑은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요. 가슴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뱃속 깊숙이 사랑하여서 육신이 썩어 없어지더라도, 뼈가 가루가 되어 없어지는 마지막 순간 까지도 그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랑들을 모두 모두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는 사랑을 하기란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다. 사랑할 수 없어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뒤로 손 감추어 주먹을 불끈 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해내야 한다. 사랑은 힘들게, 힘들게 해내는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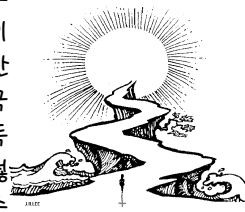
지난 26년 동안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끝으로 정성들여 주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권구자 집사)

## 나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은 나의고백이었다. 중국대학 찬양팀과 늦은 밤까지 찬양하며, 기도했다. 얼마만의 일이던가...주님을 사랑한다하면서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는지.. 대학 찬양팀은 아주 대단한 학생들이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했다. 그들을 보며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 너무 기뻐 뛰는 모습.. 찬양하면서 기도가 터지면 쉬질않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정말 대단했다. 팀들은 나에게 그랬다. 우리는 주님의 작은 도구들이 되길 기도한다고..



찬양을 통하여 드렸던 나의 시간들..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의 삶이 다할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며 다시금 되새겨 본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기지 않도록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철수와 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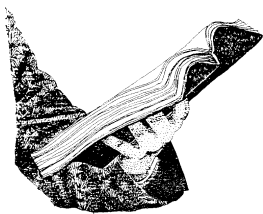
## 하나님의 인도하심

10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 미국 사회와 문화 속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일깨워 무릎을 꿇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 가운데 이곳 ABQ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의 나머지 생(生)을 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고 내가 섬기던 감리교회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섬기며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당신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시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시므로 낙심치 않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았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의 서로 사랑하심이 우리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교회는 연수가 더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혹은 받을 때 그저 감사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삶의 행로가 어찌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그분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영심 권사)

## “마음 산책”을 읽고 나서



얼마 전에 (5/07) 한국 방문 시 우연한 기회에 서점에 들렀다가 Book Title이 눈에 띄어 “마음 산책”(Charles R. Swindoll)을 사서 읽었다. 말씀이 그리워서 김고광 목사님이 보내 주시는 설교 Tape

으로 시작된 이 교회 어언 세월이 유수 같아 창립 25주년을 마치하며 그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에 담긴 8가지 영적 훈련의 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친밀함 2. 단순함 3. 침묵 4. 복종 5. 기도 6. 겸손 7. 자기통제 8. 희생

이 8가지 원리 가운데 처음의 4가지는 무엇인가를 제

거함으로서 우리의 삶에 여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후의 4가지 원리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뚜렷한 정체성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과정들이다.

1. 친밀함: 첫 사랑을 회복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훈련. 신앙훈련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는 열쇠이다.

2. 단순함: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활동이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

3. 침묵과 고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그 뜻대로 길들이시도록 세상의 온갖 소란함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삶의 행보를 느긋하게 조절하는 훈련.

4. 복종: 우리민음을 죽이는 독소인 이기심을 제거하는 해독제의 역할은 1) 그리스도를 바라 보는 것 (히 12:2) “만민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는 것 (히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복종은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복종이 어려울수록 놀라움은 크다.

5.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의미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도를 통해 장벽이 무너지고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등의 역사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는 1) 걱정 근심의 치유책. 2)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빌 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아뢰라.” 3) 주님의 평강. 빌 4:7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영적 생활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6. 겸손: 1)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닌 훈련. 1-1)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같은 덕성을 가리킨다. 1-2) 겸손에 다른 희생이 너무 크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기를 꺼리곤 한다. 1-3) 겸손은 왜곡된 자기비하와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다. 2) 겸손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마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3) 겸손은 믿음의 행위이다.

7. 자기통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에도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다.

8. 희생: 예수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명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앙훈련의 단계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귀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단과 목표를

바로 구분할 줄 아는 일 이것은 신앙훈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행동지침이다.

이 책에 담겨있는 8가지 영적훈련의 원리들을 보다 진지하게 우리교인들의 삶에 실천해 보기를 기원하면서,  
(오영 권사)

## 알버커키 감리교회 역사 26년

### 1) 걸음마 시대 (초기)

필자는 CVI Laser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퇴직하던 그때의 말할 수 없이 홀가분하고 기뻐하던 감흥은 여전히 포렐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벌써 퇴직한 후 몇 년이 흘렀다. 퇴직 당시 48송이 노란 장미꽃 다발을 품에 안았을 때의 희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바램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나의 생각뿐이다. 지금은 세월을 거슬러 갈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다. 우리교회가 금년에 26주년을 맞이한다. 교회 다니는 것을 군대뺀그릇 따지듯이 한다면 나는 아마도 선임하사쯤은 되었을지 모른다. 우리 내외가 미국에 큰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 온 것이 40년 전이었다. 한국에서부터 교회생활을 했으니 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셈이다. 우리들이 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 몸담고 신앙 생활하기 시작한 때를 확실하게 고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20여 년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많은 신도들이 우리교회를 거쳐 갔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말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계신 오영 권사님의 이야기이다. 알버커키 감리교회 초창기에는 캘리포니아에 계시던 김고광 목사님의 설교 tape를 받아서 그것을 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 그와 같이 설교tape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호응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알버커키 한인 교포들은 이민자로서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생활에 지쳤을 것이다. 이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보겠다는 의지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갈급한 마음과 믿음의 씨앗들이 모여서 시작된 우리교회가 지금은 26살의 의젓한 청년이 되었다.

우리도 혈기 왕성한 청년시절을 보냈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패기로 5대주 6대양을 정복하겠다는 오만 무쌍한 마음도 있었다. 이런 마음가짐은 위험천만한 것이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 솔로몬은 오랜 인생경험을 거친 후에 깨닫게 된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해 “헛되고 헛되다”라며 탄식하였다. 그가 갈파했던 인생철학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시절의 꿈은 참으로 귀하다고 본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고할 것이니라.” 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늙은이들은 걸

은이들에게 말해주어야 할 것을 다 말해 주라는 것이다. 종건 실건 우리들이 겪으며 살아온 우리교회 역사를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들은 우리의 업적 뿐 아니라 잘못과 실수들을 돌아보며 반복되는 실수 없이 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것들을 다 말해 주어야 한다. 또 요엘은 계속해서 말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한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꿈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가여운 삶인지를 생각해보라!

### 2) 광야시대 (훈련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서 시내광야에 도착했다. 그 광야에는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없는 황량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2백만이 넘었다고 한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다.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극했던 애굽에서의 노예생활 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택한 이 고통스러운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졌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휘둘려 들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치는 사건도 있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났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수결로 결정했던 것이 의외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복지를 못들어 가게 되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극단적인 경험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도 몹시 건디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정용치 목사님이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그것도 알버커키에 있는 우리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다. 정용치 목사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셨다. 온갖 정열을 쏟으며 우리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힘을 다하셨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성도 한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며 목회를 하셨다. 특히 UNM 박사과정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였다. 매주일 우리들은 부흥 목사님을 모신 듯한 감명 있는 그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생활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한 마찰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적인 집요한 고집과 텃세 그리고 교회 내





에 헤게모니를 잡아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교회는 혹독한 시련을 받았던 것이다. 반면에 이 시련은 새로 거듭나기 위해 감수해야하는 훈련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들에게 큰 도움과 격려를 해주셨던 분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Elkins 감리사님 이었다. 가끔 월요일이면 우리들에게 전화하셔서 우리교회의 상황을 물어보고 대책을 의논 하였던. 이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이경화 장로님이었다. 어쨌건 Elkins 감리사님과 정용치 목사님의 인내로 우리들에게 닦였던 모든 난관은 극복되었고 그 몇 년 동안의 훈련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 3) 안정시대

김학수 목사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그 후유증 또한 가라앉았다. 새로운 교회역사의 한 page 가 시작된 것이다. 모든 행사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잔잔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김학수 목사님은 주일은 꼭 우리교회에서 지켰고 9년 동안 주일을 비웠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특기할 것은 평신도들의 목회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신도 주일을 세우고 주일 설교도 평신도가 하도록 권장하고 자유선택의 원칙을 지켰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지키며 목회활동을 유지하셨다. 김학수 목사님의 차분한 기풍 때문에 우리교회는 안정을 유지했고 교회 내에 잡음이 없이 순탄대로를 걷게 된 것이다.

김학수 목사님 재임당시 전 미국 연합감리교회내의 부흥운동을 목적으로 Vision 2000 이란 표어를 내걸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각 교회에서 각성운동을 했다. 이때 필자도 이 회합에 참가하고 우리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였다. 그때 필자가 우리교회의 전도가 착상했고 오 영 권사님의 주선으로 김순애 선생님께 작곡을 의뢰하여 전도가 탄생되었다. 그 후에 우리교회에서 특별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불렀었다. 우리 전도가 송중남 목사님이 재임당시에도 계속해서 불렀었는데, 지금은 전도가 잊혀지고 있어서 아쉽기만 하다.



### 4) 부흥시대 Part1

송중남 목사님이 부임한 후에는 잔잔하고 조용했던 우리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송중남 목사님의 활발한 성격 때문에 교회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전과 다른 활기가 돌았다. 송중남 목사님은 잃은 양 찾는데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잘 지도하셨다. 여러 성도들이 송중남 목사님의 목회활동을 100%지지 하기도 하였다. 송중남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도 그분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 말이다.

또 한 가지 덕이 되었던 것은 송은순 사모님이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어서 교회운영에 여러 가지 조언도 하시고 주일학교 일에 열심을 다하셨다. 또한 새 성경번역에도 참가하셨고 우리교회 News Letter인 “광야의 소리”를 겨울호, 가을호등 몇 차례 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것이다. 송은순 사모님의 글은 Christian

신문, 한국 신문에도 여러 번 기사화 되곤 했다.

송중남 목사님 재임당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건축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다.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20여 년 동안 여러 교회 시설을 빌려 사용하며 셋방살이(?) 하던 신세를 청산하고 우리들이 마음대로 제한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 것이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건축한 이 놀라운 업적은 후대에 두고 기념하며 알리고 홍보해야 할 줄 안다.

또 한 가지 언급한다면, 우리교회 본당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이기도 하다. 그분이 아니다. 우리들이 음향공학에 맞춰서 본당을 설계한 것도 아닌데 높이가 20', 넓이가 32', 길이가 48'로 그 비율이 1:1.6:2.4로 세계 유명한 concert hall 비율에 꼭 맞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 교회 본당이 세계적인 연주 회관과 같다니 좋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한 것은 음향공학에 맞춰서 최적의 pleasing sound를 낼 수 있도록 강대상 위에 특수 천장 재료를 설치한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가대가 성가를 부를 때 본당 건물이 최상의 소리를 만들어줌으로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45' 30' 60'이므로 우리성전과 거의 같은 size임을 알 수 있다.

### 5) 부흥시대 Part2

제 4대 목사님으로 김기천 목사님이 오셨다. 김기천 목사님이 오시게 된 배경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8년 전으로 돌아간다. 김기천 목사님은 그때 Boston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하시고 계셨고 그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방문을 마치고 Dallas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공교롭게도 김기천 목사님의 사모님이 급성맹장염(?)으로 Dallas까지 가지 못하고 알버커키에 불시착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김기천 목사님은 감리교회를 수소문 해보는 가운데 우리교회 송중남 목사님과 전화연락이 되었고, 일주일 동안 송중남 목사님 댁에 머물렀고 우리교회에 오셔서 주일설교도 하시게 되었다. Boston으로 돌아가신 김기천 목사님 댁과 송중남 목사님과는 거의 연락이 없이 5년이 흘렀다.

우리들은 송중남 목사님이 떠나시게 되어 새 목사님을 찾았을 때 중남부지역 감리사님으로 시무하시던 나정용 목사님이 김기천 목사님을 추천해 주신 것이다. 그때 최영심 권사님은 우리들이 찾는 목사님이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분이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바로 최영심 권사님이 바라던 그 목사님 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런 희한한 인연을 알고 나서 우리 감

러사님 이었던 Dr. Hall에게 말씀드렸더니 “Hallelujah, Our Lord is working for you.” 라고 하셨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다. 이런 기막힌 인연이 있어서 김기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의 여러 재능은 다 방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영심 권사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목사님의 깊은 인품을 보신 것이다. 나정용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을 “성경박사”라고 부르신다. 우리는 김기천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지식에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새로운 program을 가지고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뛰시는 목사님이시다. 현재 우리교회는 많은 주일학생들의 증가로 인해서 교육관을 증축하는 project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리라 믿고 계속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영어예배를 시작해서 여러 미국 분이 대예배에 참석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영어속회가 조직되어 Chris Anderson 집사님이 인도자가 되어 활발하게 속회활동을 하고 있다. 목사님이 현재 집필중인 성경강해 책은 현장에서 뛰시는 목사님들을 위한 성경해설 책이 될 것이라고 귀띔해 주셨다. 아무튼 우리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요 땅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오세교회가 될 것을 바라고 꿈을 꾸며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준호 장로)

## 삶과 죽음의 선택

요한 일서 3장 14~16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死亡)에서 옮겨 생명(生命)으로 들어 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殺人)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永生)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2장 14~21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로 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스물둘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惡)에게 지지 말고 선(善)으로 악(惡)을 이기라.

히브리서 12장 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

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요한일서에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으로 옮겨 피차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權威)로 늘 승리하며 사탄의 마수를 쳐부스시라. 남의 허물을 또 다른 이에게 말함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사탄의 속임수를 말살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석중 목사드림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모습'

시장 통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 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 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우산 두 개를 들고 문을 나섭니다. 곧 바로 딸의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잠시 주춤 했습니다. 작업복에 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걱정된 어머니는 건물 아래 층에서 딸이 끝나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 봤을 때, 마침 어머니를 내려다 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을 했지만 딸은 못 본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비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할 뿐이었습니다.

딸은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다. 딸이 부끄러워 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 늦은 저녁에야 이웃집에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끝나 버렸으면 어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 하나 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영게 묻은 앞치마,  
그리고 낡은 신발.

그럼 속엔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  
의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쪽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 입니다.

어느새 어머니 곁으로 다가온 딸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 오래 바라보았  
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 하나님 안에 사는 법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나쁜 습관을 후회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합  
니다. 그들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말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결코 착  
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순간마다 당신의 구원 속  
으로 더욱 충만히 들어갈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  
간마다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사  
십시오. 그리고 그 분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피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을 발견하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 내십시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  
랑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지 발견하고 속히 그 일을 행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  
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에게 요  
구하신 것을 행하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면 충  
분합니다. 당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불편  
해지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낙  
당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철수와  
영희)

##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

우리는 성도로써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어야한다.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남을 신뢰하고 남들에게 신  
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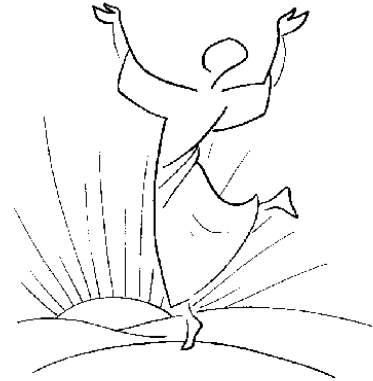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서 우리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를  
즐거워합니다.

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

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따  
르고 순종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5. In Christ 성도는 주일성수를 기쁨과 자함으로 여깁니  
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킴으로, 성수 주일의 축복을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드레스코드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덕목들이다. (이철수 교우 제공)



## 웃어봅시다

교회에 다니시는 할머니가 한분 계셨다... 어느날 교회와  
부흥회를 인도 하시러 목사님이 오셨다... 강사 숙소에서 할머니  
가 가셔서 정성껏 시중을 들어 주셨다... 그 할머니는 찬 것들  
마시면 감기 돈다면서, 콜라까지 보글보글 끓여다 주신다...

이 할머니는 성경책을 자주 보고 계셨는데.... 성경은 다 읽  
지 않고 사람 이름만 읽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이상히 생각하  
고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  
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인즉..~~! "아이구~~.. 목사님..  
곧 하나님한테 갈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무엇 할니까? 성경  
에 써있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있을텐데.... 이름이라도 외  
어야 만나면 아는 척 하지요..."

## 우편 요금이 5월 11일부터 인상됩니다.

현재 42센트하는 우표 값이 오는 5월 11일부터 2센트 더 오  
른 44센트가 된다. 1온스 미만의 큰 봉투나 소포 요금도 5센트  
씩 더 올라 각각 88센트와 1.22 달러가 된다. 국제 우편 요금  
도 인상되 한국은 1온스 미만은 98센트로 된다.